

韓國 女性의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

- 조선시대 여성 수발법을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의상학전공

석사 정 상 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의상학전공

교수 조 효 순

目 次

I. 序 論

II. 韓·中 修髮의 起源

III. 修髮樣式의 變遷

1. 韓國 修髮樣式의 變遷

1) 朝鮮時代 以前

2) 朝鮮時代

2. 中國 修髮樣式의 變遷

IV. 朝鮮時代 女性의 修飾

1. 修飾品

2. 修髮法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수발법이란 인체에 가장 중요한 腦部分을 감싸며 보호하고 있는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얼굴과 衣服에 어울리게 꾸미기 위한 手段을 말하며 머리의 模樣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修飾品까지를 포함하여 아름답게 製作하는 方法을 말한다. 本 論文에서는 우리 나라의 수발법의 기원과 원류를 살피기 위하여 한·중 수발양식의 변천에 관하여 살펴보고 조선시대 여성 수식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발법을 재현해 보고자 한다.

질긴 풀잎 등으로 묶거나 엮어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毛髮에 대한 最初의 文獻은 『文獻備考』에 “檀君 元年부터 變髮法을 가르친 데서 시작했다” 고 기록되어 있고,¹⁾ B.C. 3000년경 소영자 옛무덤에서 뼈비녀가 출토됨으로 韓國에서의 수발양식은 B.C. 3000년전 이미 수발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6000년전 채색도기의 원시인과 청해대릉현의 손씨 마을에서 출토한 무도 인형은 변발한 모습으로²⁾ 중국의 수발 기원은 상한해서 B.C. 6000년, 하한해서 B.C. 4000년전부터라고 생각된다.

II. 韓·中 修髮의 起源

인간의 수발 기원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남, 여를 불문하고 피발 상태에서 유연한 나무 껍질이나

III. 修髮樣式의 變遷

1. 韓國 修髮樣式의 變遷

1) 趙孝順(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일지사), p.401.

2) 華梅·박성실역(1992), 『중국복식사』 (서울:경춘사), pp.4~5.

1) 朝鮮時代 以前

삼한시대에는 마한·진한·변한으로 한강이남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에 “마한인의 수발양식을 보면 魁頭露紛 형태로 날상투를 하였다.” 고 하였으며³⁾ 진한인과 변한인은 미발이며 扁頭의 풍습이 있었고⁴⁾, 삼한의 수발양식은 『海東歷史』에 보면 “삼한의 부인은 盤髮하였는데 모두 鵝髻를 지었고 餘髮은 이를 늘어뜨렸으며, 여자는 말아서 뒤에 드리웠다.”⁵⁾ 고 하였다.

고구려의 수발양식은 엷은머리로 모발 끝을 전두부의 중앙에 감아 올린 형으로 집안 舞踊塚 벽화에서 볼 수 있다.⁶⁾ 머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위로하고 둘은 좌·우 두뺨 근처에서 각각 묶어 내려뜨린 문기명머리와 모발을 뒤통수에서 낮게 틀어준 양식의 쪽머리와 소녀의 정수리 가까이 두정부에서 상투를 솟게 한 쌍상투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總(묶은머리)은 집안현 무용총 주실 右壁의 식상을 든 소녀에게서 볼 수 있으며⁷⁾, 고계와 내린 머리 등이 있었다⁸⁾.

백제 부인들의 수발양식은 『北史』 백제 조에 “여자는 머리를 땅아 뒤로 늘이되 혼례를 하게 되면 두가닥으로 나누어 머리 위에 서린다.”⁹⁾ 하였다.

신라시대 수발양식에 대하여 『東京雜記』에는 “신라 때에 國都의 북방이 허결하여 여자들이 뒤통수에 쪽을 찌고 이름하기를 北髻라고 하였으니 지금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며, 쪽머리와 비슷한 형태이다.

통일신라시대 여인의 머리모양은 梳와 비녀의 금령으로 보아 화려하고 장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¹⁰⁾, 고려의 수발양식은 『고려도경』에 “부인의 상투는 귀천이 동일하게 오른쪽 어깨에 늘이고 나머지는 늘어 뜨려 붉은 비단으로 묶고 귀한 사람은 작은 비녀를 꽂는다”고 했으며¹²⁾ 추마계와 비슷한 수발양식은 唐·宋의 양식이 고려까지 전파된 듯하다.

2) 朝鮮時代

조선 여성들의 수발 양식은 처음에는 고려의 수발형태를 따랐으나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여자 복식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천은 없었다. 그에 비하면 수발양식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삼국시대부터 대체로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수발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이 조선조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절목도하여 다양한 수발형태를 창출해 내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조선조의 수발 양식을 두식·수식·장신구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수발제작의 변천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엷은머리에 다리를 드러 머리를 크고 높게 할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 성종 대에는 고계의 높이가 1척이나 되었으며 이러한 가계양식은 그 기원이 원에서 전해졌다고 하나 이는 明制에도 있었다¹³⁾. 이처럼 사치와 머리의 크기가 대단했던 것은 중국의 『漢武傳』¹⁴⁾에서도 볼 수 있는데

3) 金容文(199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p.27.

4) 奎海宗(1980), 『동이 쪽의 문헌적 연구』 (서울:일조각), pp.30~34.

5) 趙孝順(1988), 앞의 책, p.402.

6) 杉本正年·문광희역(1995), 『동양복장사논고』 중세편, p.350.

7) 趙孝順(1988), 앞의 책, pp.402~404.

8) 박강희(1988), 「고구려 문화사」, p.292.

9) 『北史』 百濟條.

10) 趙孝順(1988), 앞의 책, p.408.

11) 高美娟(1993), 「한국 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p.42.

12) 『高麗圖經』 卷20 雜俗. “當是未嫁之人 亦不被髮”

13) 『成宗實錄』 권.130, 十三年 六月, p. 21.

“婦人은 머리를 삼각으로 묶고 남은 머리를 풀어 헤쳤는데 허리까지 온다.”하였고, 『東觀漢記』¹⁵⁾에 “명덕황후의 아름다운 머리는 사방으로 크게 만들고서도 오히려 머리가 남아 세 번을 더 들렀다”고 한 것을 보면 고계는 서역의 영향(투르판)이 조선 시대 이전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正祖 辛亥 이후 加髮을 금하고 北髻 俗名 娘子라고 하는 것을 쓰게 하였는데 그것은 머리를 땅아 뇌후에 등글게 서린 후에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쓰게 한 것이다¹⁶⁾. 삼국시대부터 대중을 이루었던 얻은머리에서 北髻(쪽머리)로 변천되어 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쪽이 뒤통수에 달려있던 것이 조선 왕조 말엽에는 점차 저고리 위에 있게 되었으며 개화기 이후 현재는 뇌 후로 올라가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쪽진머리라고 해서 본 머리 뿐 만 아니라 가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말 처녀들은 귀 밑머리 혹은 땅아내린머리 끝을 묶어주고 그곳에 자주 제비부리댕기 또는 토막댕기를 물려서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

2. 中國 修髮樣式의 變遷

중국의 선사시대 青海大統縣의 손씨 마을에서 채색도분의 3조의 무도 인형이 출토되었으며¹⁷⁾, 殷代는 玉雕人像의 선문쌍계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의 양끝이 말리고 위에는 양뿔의 두식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¹⁸⁾. 周代의 귀족들은 길일을 택하여 머리를 댕기로 묶어 성년이 될 때까지 간직했고 여자는 한 가닥으로 땅아 내렸다¹⁹⁾. 春秋戰國時代는 머리를 束髮로 모아 천으로 묶기도 하였으며²⁰⁾ 洛陽의 기혼 여성은 머리를 두가닥으로 나누어 늘어트렸다²¹⁾. 진대의 수발양식은 가발을 이용한 蔽髻·挽成 單環, 雙環 및 Y髻, 螺髻 등이 있었다²²⁾. 위진 시대 여자의 수발양식은 대계와 관계가 유행하였다²³⁾ 南朝는 머리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땅기도 하였으며 雙髻髻가 유행하였다. 시종이나 시녀는 쌍계인 Y髻로 묶고 北朝에서는 머리를 땅았으며 假髻와 “大十字髻·十字髻”가 유행하였다. 樂人의 수발 형태는 雙髻로 하였다. 隨代의 수발양식은 扁平髻가 많았으며, 侍女 연주인등은 雙髻를 하였다²⁴⁾. 唐代의 결발에는 高髻와 垂髻로 나눌 수 있으며 전리꺾, 가계, 대수계 등은 모두 고계로 가발이 사용되었다²⁵⁾. 五代 唐의 여인들의 머리는 3~4미터가 되도록 길고 좁으며 한 가닥 飄帶가 되었다²⁶⁾. 宋代의 婦女는 唐과 五代의 遺風을 이어 高髻를 좋아했으며²⁷⁾, 이 시대의 부녀 노동자는 대부분이 平頭를 하였다. 明初의 수발양식은 宋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將髮髻에서 달기에는 大髻로 변화하였으며 일종의 假髻가 사용되었고, ‘髻(jiu)髻’라고 하여 철사를 등글게丸을 만들어 바깥쪽에 가발을 놓았다²⁸⁾. 청초

14) 『漢武內傳』 “上元夫人頭作 三角髻餘髮上散 垂元腰”.

15) 『東觀漢記』 “明德皇后 美髮 爲四起大髻 尙有餘髮 纒髻三匝”.

16) 李圭景著,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婦女首飾辯證說, 참조.

17) 華梅·박성실역(1992), 앞의 책, pp.2~5.

18) 金容文(1993), 앞의 논문, p.62

19) 앙리마스페로·김선민역(1995), 『고대중국』 (서울: 까치), pp.100~102.

20) 杉本正年·문광희역(1995), 앞의 책, p.109.

21) 杉本正年·문광희역(1995), 앞 책, p.112.

22) 華梅·박성실역(1992), 앞의 책, pp.69~70.

23) 杉本正年(1979), 『東洋服裝史論攷』 고대편 (東京:文化出版局), pp.9~25.

24) 金容文(1993), 앞의 논문, pp.71~72.

25) 杉本正年·문광희역(1995), 앞의 책, p.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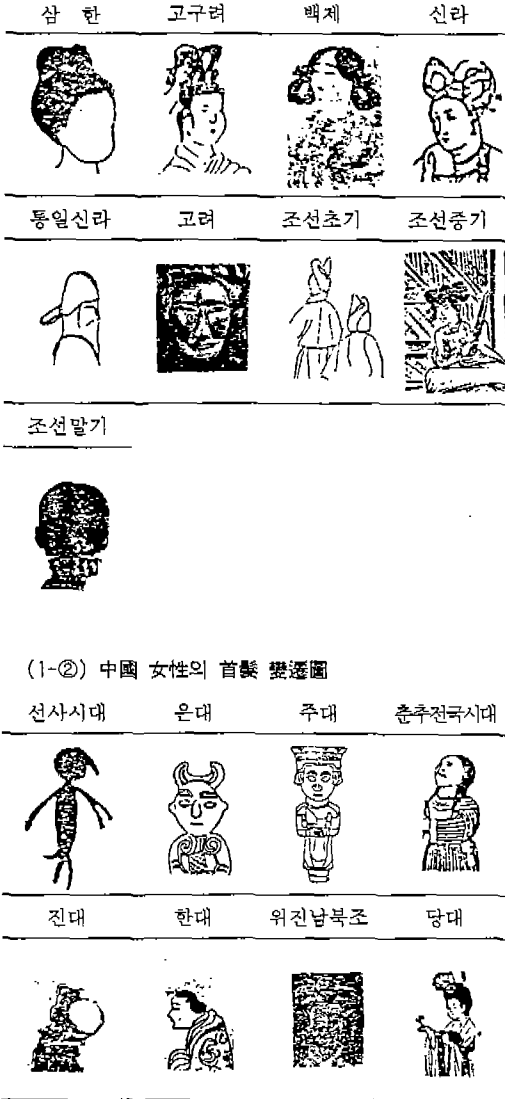
26) 華梅·박성실역(1992), 앞의 책, p.115.

27) 金容文(1993), 앞의 논문, pp.78~79.

滿女는 二把頭, 漢女는 牡丹頭·荷花頭 등을 하였다.

〈圖 1〉 韓·中 女性 首髮의 變遷圖

(1-①) 韓國 女性의 首髮 變遷圖



IV. 朝鮮時代 女性의 修飾

1. 修飾品

조선조 부녀자의 修飾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쪽·다리·낭자·등으로 불렸던 일련의 가발(다리)이며 그 외에는 땡기·떨잠·침지·비녀·뒤꽂이·쪽두리·화관 등이 있었다. 땡기는 본래 머리털을 正纒해 주는 것으로²⁹⁾ 삼국시대부터 미혼녀의 변발수후를 채식하는데 사용되다 조선조의 유교사상의 일원화로 생활규범·제도·의식에 있어서 신분에 따라 형태·재료·색을 구분하였다³¹⁾. 미혼녀들이 사용했던 땡기로는 제비부리땡기, 어린아이들은 도투락땡기·말뚝땡기·뱃씨땡기(梨種子) 등이 있었다. 떨잠은 일명(떨칠발자)라고도 하며 왕비이하 상류계급의 예장때 머리에 장식했던 수식품으로 원형이나 각형의 옥관에 각종 보석을 꽃모양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칠보봉점의 떨쇠를 달아 동적인 멋을 가미한 것이다. 침지는 영조의 발제개혁 이후 엷은머리 대신 쪽머리와 쪽두리를 하게 됨으로 시작되었는데³²⁾ 수식의 목적도 있겠으나 쪽두리나 화관같이 머리 위에 엷는 것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침지는 내명부나 외명부의 신분을 표시하는 수단 이었다. 뒤꽂이란 주로 엷은머리나 쪽머

28) 周汎·高春明(1985). 『中國 服飾5千年』 (香港:學林出版社), p.146.
 29) 趙孝順(1988), 앞의 책, p.430.
 30) 유희경(1989), 『한국 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417.
 31) 김동욱·황옥현(1982), 『주변국가의 복식』 (서울: 삼화인쇄), p.179.
 32) 유희경(1989), 앞의 책, pp.414~415.33) 趙孝順(1988), 앞의 책, pp.435~440.

리 뒤에 덧꽃았던 비녀 이외의 일체의 수식 품을 말하며, 화관과 족두리는 모두 쪽머리에 없었던 수식 품으로 신라 문무왕때 처음 관모로 받아 들였으며, 고려로 이어져 귀족계급의 예복에 착용되었다. 족두리는 고려 高宗18년(1231) 元의 同化 정책에 따라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화관보다 훨씬 후대까지 널리 통용되었던 머리 장식품으로 오늘날 제례식, 혼례식에 사용되고 있다³⁴⁾. 너는 수식 품인 동시에 수발된 머리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도구였다. 쪽머리가 일반화되면서 가발에 치중하였던 사치는 비녀로 바뀌면서 그 모양이 다채로운 형태로 변해진 것을 볼 수 있다³⁴⁾.

2. 修髮法

가체를 이용하여 머리를 꾸며던 조선시대 궁중 여성들의 대표적인 궁중 수발법인 대수·떠구지머리·어여머리·첩지머리·엷은머리(가체이용)·새양머리·귀밑머리·쪽진 머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수발법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1) 大 首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의 大禮服 차림에 사용되었다. 대수의 모양은 앞면은 머리 정상에 고개를 만들고 좌, 우 내려오면서 A형으로 펼쳐지며 뒷면 역시 같으나 중간에 縱으로 머리를 땅고 그 위에 비단 땡기를 묶고 있다.

앞가리마를 타고 본 머리를 뇌 후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둥그랗게 말아서 뇌 후에서 고정시킨 다음 가리마 위에 첩지를 올려 놓아주고 다리를 좌, 우 귀위로 돌려 본 머리 결과 같이 보이도록 곱게 빗어 쪽머리 밑으로 다리 끝을 돌려 고정시킨다. 그 위에 대수를 올려놓는다. <圖 2>



<圖 2> 대수

2) 떠구지 머리(巨頭味)

떠구지머리는 큰 잔치때 大禮服에 하는 머리형으로 妃嬪이나 公主는 사람머리카락로 만들고 내명부는 거두미란 대형(목제)가발과 어여미라는 소형 목제 가발을 썼는데 일종의 가발을 말한다³⁵⁾. 수발법으로는 앞가리마를 해주고 쪽머리를 만든 다음 앞가리마 선 위에 첩지를 올려놓고 첩지의 양다리를 본 머리결과 같이 되게 빗고 남은 머리를 쪽머리 밑으로 돌려 넣어 고정시킨다. 첩지 위에 어염족두리를 얹어 놓고 가체를 두른 다음 그 위에 거두미를 올려 놓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녀를 꽂아준다. 비녀 꽂은 머리 밑으로 떠구지가 고정되게 끈으로 매어준다음 뒤꽂이를 좌,우의 중앙에 각 하나씩 꽂아 준다. <圖 3>



<圖 3> 떠구지머리

3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록,1권(1972), 『옛여인의 향기』(이대출판부), p.22.

35) 석주선(1971), 『한국 복식사』(서울:보진제), p.66.

3) 어여머리(於由味)

어여머리는 예장할 때 머리에 얹는 「다리(월자)」로된 커다란 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於由味, 於汝美, 어염머리라고도 한다. 앞가리마에 첩지를 달고 그 위에 어염족두리를 쓴다. 족두리 위 고정 끈을 앞뒤로 놓고 그 위로 가체를 한바퀴 돌린 다음 그 위로 두바퀴 더 돌려준다. 양 머리끝은 가체속에 넣어 마무리하고 앞뒤에 있던 족두리 끈으로 가체를 매어준다. 어염족두리 위 중앙에 떨잠을 꽂아 주고 이마 양옆에 하나씩의 떨잠을 꽂아준다. <圖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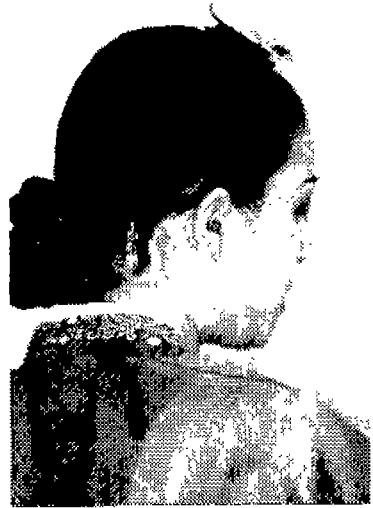
<圖 4> 어여머리

4) 첩지머리

이 첩지머리는 예장할 때의 머리로서, 왕비는 鳳, 기타 內命婦·外命婦는 개구리모양으로 만들고 좌우로 긴 머리털을 달아 가리마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느긋느긋 양쪽으로 팽아서 뒤에서 머리와 한데 묶어 쪽을 찢 머리 모양이다.³⁶⁾

앞가리마를 하고 뒤에서 머리를 하나로 잡아 묶어주고 앞가리마 중앙에 첩지를 놓고 묶어준 머리 밑으로 다리를 고정시켜주고 머리를 팽아 끝은 묶어준다음 머리 단을 왼손바닥위에 놓고 머리단을 우측으로 돌려 엄지 쪽으로 머리끝을 넘겨 돌려 주고 남은 머리를 머리 속으로 마무리 한 다음 쪽댕기를 매어준다. 왼손에 감긴 머리를 오른쪽으로 잡

아 당겨 준 다음 비너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 질러 넣어준다. <圖 5>



<圖 5> 첩지머리

5) 얹은머리(가체이용)

얹은머리는 上代社會에서부터 내려오는 出嫁女의 머리 모양으로 조선왕조 중엽 이후 이 얹은머리가 明制 宮樣의 수식을 본따 가체로 말미암아 高大海지고 머리의 사치가 심해졌다³⁷⁾. 얹은머리의 수발법은 앞가리마를 해주고 뒤에서 묶어준다음 첩지를 매어주고 뇌후에서 본 발을 붙인 밑에 가체를 대어준다. 귀앞으로 가체를 대어 귀를 가려주고 첩지위로 올라가서 엇갈려 머리를 돌려 처음 돌린 머리위로 엮어주며 내려오고 이렇게 세바퀴 돌려 준후 우측 머리끝을 가체 속으로 넣어주고 좌측 머리끝도 보이지 않게 머리 속으로 넣어 마무리 해준다. 뒤 머리 중앙에 매개댕기를 달아주고 그 위에 떨 잠을 수식해 준다. 앞 중앙에 떨 잠을 꽂고 이마 좌, 우측에 떨잠을 수식해 준다. <圖 6>

6) 새앙머리

궁중에서의 생머리란 아기 내인의 예장용 머리

36) 유희경(1989), 뒷 책, p.410.

37) 유희경(1989), 앞의 책, p.410.

모양을 말하며³⁸⁾ 수발법으로는 앞가리마를 해주고 뒤에서 하나로 모아 땡아 주고 머리끝을 묶어주고 위로 올려 안으로 구부려 넣어준다. 땡은 머리를 고정시켜주고 땡기를 중간에 대고 돌려 매어주고 한 쪽 땡기 끝을 위로 올려 땡기를 매어준다. <圖 7>



<圖 6> 엷은 머리



<圖 7> 새암머리

7) 귀밑머리

조선시대 미혼녀들의 일반적인 머리 형태로 땡아 내린 머리끝에는 자주색 금박땡기를 드렸다. 양반의 규수들은 귀뒤부터 땡아 내렸고 신분이 낮을수록 귀위에서부터 땡아 내렸다. 수발법은 앞가리마를 해주고 귀위끝 뒤에 좌우 머리를 잡아 땡아주고 하나로 잡아 세 갈래로 나누어 가운데 머리를 왼쪽 밑으로 돌리고 좌측은 오른쪽으로 돌려 가운데로 오고 그것을 중지로 받으며 우측에 있던 머리는 가운데로 돌려준다.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며 땡아준다. 두발 끝에 금박글씨가 나란히 나오도록 매어준다.<圖 8>



<圖 8> 귀밑머리

8) 쪽진 머리

쪽진 머리는 北髻, 後髻, 娘子머리 등으로 불리며 최근까지 노년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발양식이다³⁹⁾. 쪽진 머리의 수발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땡아서 쪽을 지는 것과 민머리로 쪽을 지는 것이 있으며 땡아서 쪽을 지을 때는 두발 끝의 세 갈래 가운데 쪽다리를 넣어 두발과 같이 땡아 주다가 끝을 매어주고 한바퀴 돌려 다리 끝을 머리 속으로 돌려 넣어주고 좌우로 잡아 다려 비녀를 꽂아주는 방법

38) 趙孝順(1988), 앞의 책, p.424.

39) 고미연(1993), 앞의 논문, p.61.

이 있다. 민머리일 때는 뇌후에서 머리를 묶어주고 머리 단을 느긋느긋 돌려 내려와 두발 끝을 매어주고 땡은 머리와 같은 방법으로 쪽진 머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발 끝을 매어주지 않고도 쪽진 머리를 하기도 하였다⁴⁰⁾. 수발법은 앞가리마를 해주고 뒤에서 머리를 묶어주고 머리 단을 살살 돌려가며 쪽을 만들만큼 내려온 다음 왼손바닥 엄지 쪽으로 머리를 놓고 손등으로 돌려 머리 단을 손가락 끝 쪽으로 돌려 머리끝을 속으로 마무리 한 후 손등이 위로 오도록 돌려주고 왼손엄지는 왼쪽 머리 속을 잡고 오른손 엄지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 넓혀준다. 비녀를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꽂아준다.〈圖 9〉



〈圖 9〉 쪽진머리

V. 結 論

1. 本 論 文은 韓, 中 兩國의 修髮樣式에 대한 起源 및 變遷과, 修髮을 裝飾해주는 修飾品, 朝鮮時代女性 修髮法 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우리 나라 수발의 기원은 모발에 대한 최초의 문헌으로 文獻備考에 단군 원년부터 變髮法을 가르친 데서 시작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B. C. 3,000년 이전부터 이미 수발법이 있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1만년 전을 전후하여 장식예술품으로 뼈비녀, 돌비녀등을 만들어 사용한 것과 약 6,000년전 辛店의 채색 도기의 원시인과 靑海大通縣의 손씨 마을에서 출토한 무도인형은 변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3. 한국여성의 수발 변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삼한시대의 여성은 盤髮하고 삼국시대 고구려는 없은머리·풍기명머리·고계·묶은중발머리·쌍계와 내린머리등이 있었으며 백제시대는 땡은 머리를 하면서 신분의 구별을 하였다. 신라는 고계가 있었다. 고려시대 여자들의 수발형태가 가체를 이용한 없은머리가 있었는데, 이는 中國의 宋代에 流行하였던 고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宋代·明代·清代의 여자들은 꽃송이를 머리에 장식하였다 하였는데, 高麗의 여자들은 꽃을 머리에 꽂았다는 文獻과 壁畵나 遺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 이전부터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고려시대 까지 당풍의 수발양식을 궁중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모방도 하면서 다양한 수발형태를 만들어 내었으나 무조건 中國의 風習을 模倣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風習에 맞게 變化, 變遷되면서 民族 固有의 수발법이 自然的으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朝鮮時代女性의 수발법은 朝鮮初 高麗時代의 遺風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中期에 이르러 王妃에서 庶民女子들까지 假髻로 꾸민 없은머리를 모두 선호하였는데 朝鮮時代 上流層 女性들은 中國의 修髮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모방하였으나 國民의 주종을 이루는 庶民女性들은 韓國의 고유한 風俗을 면면히 이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부녀자들의 없은머리와 묶은 머리 등에서 볼 수가 있다. 朝鮮中期 이후 여성들의 加髻를 이용한 髻倣로 가체금지

40) 정순금, 78 세, 서초구 서초동 꽃동네, 1998. 3 필자대담.

령 이후 쪽진 머리로 차츰 변화되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수발 변천은 18,000년 전의 골침 제조를 시작으로 신석기 시대 이미 머리 모양을 치장할 줄 알게 되었고 선진시대의 수발법은 쌍계였으며 비녀를 사용하였다함은 고계의 수발양식이었음을 추측한다. 春秋戰國 시대에는 속발로 모아 천으로 묶어 주었고, 진의 여자들은 선발과 만성단환, 쌍환 및 Y계, 폐계 등을 하였다. 한의 수발양식은 고계와 수계, 추마계 등을 하였고, 위진남북조의 수발양식은 남조의 쌍환과 북조의 십자계, 수대의 편평계 등이 있었으며, 당대의 수발양식은 하녀들은 삼료계, 환상으로 곁친 중환계와 권계 등이 있었다. 오대의 여자들은 길고 좁은 수발양식으로 표대가 되었고 宋代의 부녀자들은 고계를 하였고 부녀 노동자들은 평두를 하였다. 明·清代는 假髻와 鮮花 梳髻를 하였고 淸初의 滿女는 二把頭, 漢女는 牧丹頭, 荷花頭등과 같은 고계와 淸末 미혼여자는 長辮, 북방의 여자들이 髻위에 은비녀를 꽂은 것으로 보아 高髻였음을 알 수 있다. 中國 역시 광서 말년 강남의 부녀는 髻를 낮게 하여 어깨에 늘어 뜨리므로서 漢, 中의 女性들의 수발법은 사치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맞는 수발법이 普遍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조선시대 여성의 수식품으로는 다리·댕기·떨잠·첩지·뒤꽂이·화관과 족두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식품들은 수발법의 발달과 더불어 변천되고 머리장신구로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朝鮮時代 여성의 수발법 중 宮中에서 대수·떠구지머리·어여머리·첩지머리·엷은머리와 새앙머리, 쪽진머리, 미혼녀의 귀밑머리 등에 관한 수발법을 재현해 보았다.

傳統修髮의 재현을 사진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대여성들의 자신의 긴 머리가 없어 거의가 가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전통 수발법이 시

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 앙머리에서는 두가닥으로 땅아 구부려 넣고 중간에 댕기를 매었다고 되어있으나 현재는 한가닥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 전술한 한국과 중국의 수발법의 변천과 수식품 및 수발법의 재현을 고찰한 결과들이 수발법의 재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1) 古 書

- 朴容大 外, 增補文獻備考(융희 二年, 1908),
- 朝鮮王朝實錄(宣祖三十六年, 1603~융희 四年, 1910)
- 韓致滌, 海東繹史(正祖年間, 1800年頃)
- 北 史
- 高麗圖經
- 東觀漢記
- 隨 書
- 魏 書
- 漢武內傳

(2) 現代書

- 김동욱(1982), 주변국가의 복식, 서울: 삼화인쇄
- 閔周冕(1913), 東京雜記, 東京:朝鮮光文會,
- 박강희(1988), 「고구려문화사」, 서울:사회과학출판사.
- 伏候家(1989), 「歷代婦女的髮式」, 호남성박물관.
- 杉本正年·문광희 譯(1995), 동양복장사 논고, 고대편, 서울:경춘사.
- 석주선(1971), 「한국 복식사」, 서울:보진제,
- 沈從文(1988), 「中國古代 服飾 研究」, 台北:南天書局有限公司.
- 王宇濤(1978), 中國服裝史綱, 臺北:中華大典編印會印.

- 에드워드.H.샤퍼(1992). 「고대중국」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 유희경(1989).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규경(1959). 「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동국문화사.
- 앙리마스페로·김선민 譯(1995). 「고대중국」. 서울:도서출판까지.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도록.1권. 옛여인의 향기」. 이대 출판부.
- 趙孝順(1988).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서울:일지사.
- 趙孝順(1986). 朝鮮朝 首服의 風俗史的 研究」. 복식10호.
- 周汎·高春明(1985). 中國服飾 5千年」. 香港:學林出版社
- 최몽룡(1983). 「인류문화의 발생과 전개」. 서울:동성사.
- 허진웅·홍희 譯(1991). 중국고대사회」. 서울:웅문선.
- 華梅·박성실, 이수용 譯(1992). 「중국복식사」. 서울:경춘사.

<학위논문>

- 金容文(199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容文(1982). 「우리나라의 수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미연(1993). 「한국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구인숙(1989). 「황성동 고분출토 토우의 복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1987). 「용강동 토우에 나타난 복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of
Korean Women's Hair Style
- From the Viewpoint of Woman's Hair Style
in Cho-Sun Dynasty -

SOO-BAL(Hair Style) is a method Which match hair style to face and clothes with using hair covering and protecting the head. Also SOO-BAL includes personal ornaments using to avoid one's hair be disheveled

In a standpoint of beauty and spirit, etiquette, SOO-BAL is a very important thing as one being dressed up. Until now, since just a form of hair style have been studied, hair styling process is nothing to be known and studied.

Time after time, our unique traditional SOO-BAL is forgotten with clothes and then this th-esis will be classified hair styling form following a form of hair style in royal palace of the C-hosun dynasty.

According to the record of HAE DONG HISTORY, It shows the same of attire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yle in age of the chosun.

The reason is that there were no any certain boundary border and the interaction of culture between two countries was happened spontaneously at ancient time like the GOCHO-SUN age. Until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the korean attire be changed had gone with chinese one s-imilarly. The chinese form gave to influence on the EONJIN MEURI · POON-GI-MYEONG MEURI · JJO-CJIN MEURI · MOOK-EUN GOONG-BAL MEURI · OL-LIN MEURI · SSANGSANG-TU ME-URI be drawn wall painting in the KOKUR-YU.

And a gold chignon accessory unearthed in a MOO-RYOUNG royal mausoleum is proof of the Korean attire be changed with Chinese. In the Shilla dynasty at three years after Cjin-Deuk (A. D. 649) reign. It was recorded that the dynasty let women wear the form of Chinese attire. Also in the Koryo dynasty, a rod-like hairpin (BIN-YEU) and DANG-GI employing EON-JIN MEURI was used. The SOO-BAL based on the Confucianism had lots of regulations which limited to use ornaments with classes of society in the CHOSUN dynasty.

Until YOUNG CHO and CHUNG CHO period, EONJIN MEURI be decorated GACHAE was swept overwherly. But a law forbidding of GACHAE was announced by dynasty as indulging in luxury.

Women of yangban used a rod-like hairpin and a chignon accessory made by jewelry. And lowly women wore a rod-like hairpin made of horn and wood to perform EONJIN MEURI with PUNCHAE.

Most unmarried women decorated with DDA-AH-NEULIN MEURI, GUI-MIT MEURI, specially in palace with SAE-ANG MEURI.

At palace, one put on a full dress with KEUN MEURI, and a simple dress with ER-YEO ME-

URI be decorated DDERL-JAM.

The CHOP-JI MEURI manifested social rank, class. Kids at CHO-SUN age had BA-DUK-PAN MEURI and JONG-JONG MEURI.

The ornament things are GACHE, DDERL JAM with EON-JIN M-EURI, and all kinds of rod-like hairpin and chignon accessory used in JJOK MEURI.

In DANGGI, JE-BI-BURI DANGGI used by unmarried women, DO-TOO-RAK DANGGI and AP DANGGI on a dress suit, and BE-SSI DANGGI used by 3~4 years ungrown kids etc. were used.

And at palace, kinds of CHUPI used with JJOK MEURI showed social rank. In CHOSUN age, women want to keep shiny hair washed at TA-NO festival day, a treatment of bald hair used a forked remedy.

In CHOSUN age, woman Soo-Bal hair style has DAE-SOO · DDEU-KOO-JI MEURI · CHO-P-GI MEURI · EON-JIN MEURI · SAE-ANG MEURI · and so on. We could find out Soo-Bal was developed very well by these variety hair styles. I attached all of the hair style pictures step by step, and also explained detail my research following these pictures.